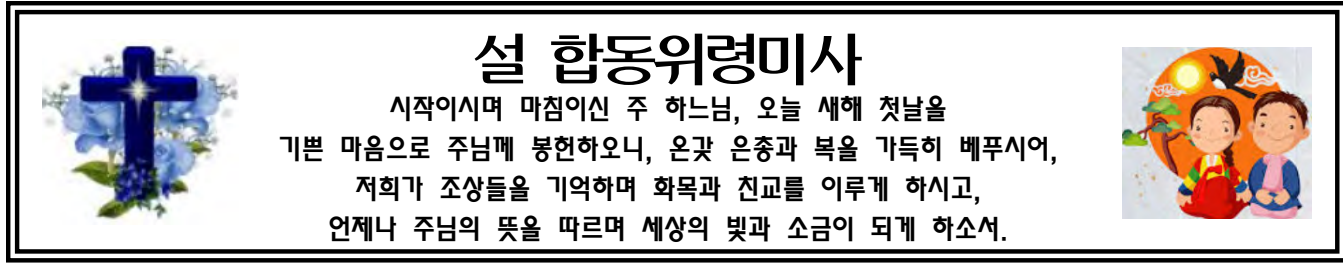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설 합동위령미사
 시작이시며 마침이신 주 하느님, 오늘 새해 첫날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베푸시어,
 저희가 조상들을 기억하며 화목과 진교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2월 기도지향

- 박재천 알베르토 / 박계숙 헬레나 가정
- 현교정 돈보스코 / 조경애 요안나프란치스카 가정

사순시기 운동

- 마니또 뽑기(기도와 회생 봉헌)
- 구역미사 및 판공성사
- 사순특강(사순 제3주일, 샌루이스 석근웅 요한 신부님)
- 신심서적 '차쿠의 아침' 읽고 감상문 쓰기

설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2월 15일(일) 11시 중심미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척, 은인의 영혼을 기억하며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지향은 미리 전례부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후, 어린이 세배와 율놀이도 마련됩니다. 즐거운 명절을 공동체와 함께 보냅니다.
 이날 미사는, 홀리트리니티 본당에 파견 나오신 안 에드워드 신부님과 공동주례합니다.

재의 수요일 전례

- 일시 : 2/18(수) 오후 8시
- 내용 : 십자가의 길, 미사 중 재의 예식
- 이날은 단식과 금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2/28(토) 오후 5시 30분
- 장소 : 로렌스성당(KU)

기타

- 2/17(화)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 2/22(일) 중심미사 후, 구역회의 있습니다.
- 신심서적 '차쿠의 아침' 접수 받습니다. 접수비는 5불입니다. 2/15일까지.
- 사순시기를 맞아, 캔사스대교구에서 Rice Bowl을 나누어 드립니다. 사순시기 동안 회생과 절제를 정성껏 봉헌합시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51	340	180/154	31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수한 베드로 문석찬 요셉	정예찬 미카엘 문예나 요안나
차주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이원준 요한 정예진 한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차주	최은미 아네스	은유나 요안나 선하서 미카엘라

애찬 봉사자

금주	다함께(설 명절)
차주	최선윤, 김계숙, 조경희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2/8	78명	289불	2,340불
문석찬, 김태중, 홍순익, 류기범, 이우석, 한봉경, 감영진, 정준구, 이우영(총 9세대)			

설 합동위령미사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르코린 4,18-

2015년 2월 15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찬미예수님! 교형 자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이 설날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정월 초하루부터 설달그믐까지 모든 날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림묵상

나병환자의 기적

사람들에게 내쫓기고 버림받은 나병환자의 간절한 애원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닦아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봅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민수기 6,22-27 <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

화 답 송 :

-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제 2 독서 : 야고보서 4,13-15
 <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복 음 : 루카 12,35-40 <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



세계 병자의 날(2/11), 교황 프란치스코 담화문



“나는 눈먼 이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이에게 다리가 되어 주었지” (욘 29,1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제정하신 제23차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하여, 질병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모로 하나가 되신 모든 병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올해 세계 병자의 날 주제로 저는 “나는 눈먼 이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이에게 다리가 되어주었지.”(욘 29,15)라는 욘의 구절을 묵상하며, 이를 마음의 지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이 지혜는 이론적 추상적인 인식, 추론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 성인이 서한에서 설명하신 대로, 이 지혜는 “순수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야고 3,17). 이 마음의 지혜는 형제자매의 고통에 열려 있고 그들에게서 하느님의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불어넣어주시는 생각과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시편의 기도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읍시다. “저희의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이다”(시편 90[89],12). 세계 병자의 날의 의의는 하느님의 선물인 이 마음의 지혜로 요약됩니다.

2. 마음의 지혜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눈먼 이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이에게 다리가 되어주었지.”라는 욘의 말에서, 고을의 원로들 가운데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던 이 의로운 사람이 곤경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의 높은 도덕적 경지는 하소연하는 가련한 이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욘 29,12-13 참조).

오늘날에도 말이 아니라 참된 신앙에 뿌리를 둔 삶으로 “눈먼 이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이에게 다리”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곧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식사를 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병자들 곁에 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특히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며칠 돌보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여러 달이나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환자가 더 이상 감사 표현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성화의 길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교회 사명의 버팀목이 됩니다.

3. 마음의 지혜는 형제자매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픈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당

신 목숨을 바치려 오신 아드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입니다(마태 20,28 참조).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22,27).

아픈 형제자매와 묵묵히 함께하는 동행의 가치를 깨닫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령께 청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곁에 머물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할 때 아픈 형제자매는 사랑과 위로를 더욱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삶의 질’을 들먹이면서 중병에 시달리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말들 뒤에는 얼마나 큰 거짓이 감춰져 있습니까!

4. 마음의 지혜는 형제자매를 심판하지 않고 그들과 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픈 이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욘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곁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레 동안 밤낮으로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너무도 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욘 2,13). 그런데 욘의 친구들은 내심 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욘의 불행이 그의 잘못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사랑은 심판하지 않는 나눔, 다른 이들의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나눔입니다. 짐짓 남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좋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거짓 겸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욘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로소 그 진정한 해답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온전히 무상으로 지극한 자비에서 우리와 맺으시는 연대라는 지고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담한 고통, 특히 무고한 고통에 대한 이 사랑의 응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영원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상처는 신앙의 걸림돌이면서 신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2014년 4월 27일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 시성식 강론 참조).

우리가 질병과 외로움과 무능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기 힘들 때에도, 고통의 경험은 은총을 전하는 탁월한 자리이며 마음의 지혜를 얻고 키우기 위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욘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뒤 하느님께 드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 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보았습니다”(욘 42,5). 고통과 아픔의 신비에 잠긴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이를 받아들일 때 신앙의 산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인간이 자신의 머리로 고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5. 사람이 되신 지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의 보호에 이번 세계 병자의 날을 맡겨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이 기도를 바치며 교황 강복을 보내드립니다.



제 2 편 은총의 샘인 성사와 기도



제10 장 감사의 기도

예수님께서 다시 속이 복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요한 11,38-41).

【주석】

무덤은 동굴인데 : 이 무덤은 크지 않은 암벽 옆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으로 만들어진 동굴이었을 것이다(주석 성경, 신약, 399).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 유대인들은 보통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교 전례 전통에서 전형적인 자세가 된다(상동). 요한 17,1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신다.

감사를 드립니다 : 예수님께서 여러 기회에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요한 6,11), 오천 명을 먹이시는 빵의 기적을 행하신다. 1테살 5,18에서 바오로 사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라고 가르친다.

【설명】

▶ 우리는 살면서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다. 그런데 하느님께 신뢰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느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음을 체험하곤 한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자비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자로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먼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언제나 당신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요한 11,42 참조).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그분께서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먹이시고 배고픈 이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시편 107,8-9).

【교회의 가르침】

▶ 모든 사건과 모든 필요는, 청원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감사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바오로 사도의 편지는 흔히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맺으며, 또한 감사의 대목에서는 언제나 주 예수님이 언급되고 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8).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콜로 4,2; 가톨릭교회교리서, 2638항).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3 -